

Current Issues of the Chinese Economy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137-747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108 2010년 8월 25일

중국 은행 및 보험산업의 경쟁력 현황

문의처: KIEP 북경사무소(hjpark@kiep.go.kr, Tel; 86-10-8497-2870)

■ 2009년 아시아 은행들의 경쟁력 조사에서 홍콩의 홍콩상하이은행이 1위로 꼽혔으며, 2~4위를 각각 중국의 공상은행, 건설은행, 중국 은행이 차지함. 10대 아시아 은행에는 중국 5개, 홍콩 3개, 싱가포르 1개, 일본 1개 등이 포함됨.

- 2009년 중국경제가 서서히 회복되면서 은행의 신용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 정부의 과다한 은행대출, 어음대출, 부동산대출 등의 위험부담을 가지고 있음.
- 중국 은행들은 최근 몇 년간 빠른 속도로 발전해 왔고, 중소기업 대출의 전문화, 농촌금융 지원, 다양한 금융서비스 지원, 영업서비스 강화 등을 위한 은행 개혁이 여전히 진행 중임.
- 중국 은행들은 대손충당금, 자기자본비율, 평균 순자산 수익율(ROAE)등에서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 건전한 상태임.
- 중국경제에 대한 낙관론 때문에 중국 은행의 미래는 밝을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의 거시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잠재적인 리스크가 크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됨.

■ 2009년 아시아 보험회사들의 경쟁력 조사에서 50대 생명보험회사 중 7개가 중국 기업이며, 50대 비생명보험회사 중 4개가 중국 기업이었음.

- 아시아 100대 보험회사 중 중국의 생명보험회사가 25개, 비생명보험 회사가 20개 포함됨.
- 아시아 시장에서 2009년 보험이익을 기준으로 일본, 중국, 한국이 각각 53%, 16%, 11%를 점유하고 있으며, 중국 보험시장의 급성장과 위안화 강세로 인하여 처음으로 중국이 한국을 제치고 2위를 차지했음.
- 중국의 생명 및 비생명보험회사들이 아시아 25대 기업 중 국가별 랭킹에서 2위를 차지하였으나 자본능력, 안정성, 유동성, 배상준비금 충족비율 및 수익성 등에서는 제고되어야 함.

1. 중국 은행 산업의 경쟁력 조사

가. 2009년 아시아 은행들의 경쟁력 조사

- 21세기 경제보도(21世纪经济报道)는 홍콩중문대학(香港中文大学)의 공상관리학원, 상해교통대학(上海交通大学)의 금융학원, 전자과기대학(电子科技大学)과 공동으로 2009년 아시아 은행들의 경쟁력을 조사했음.
- 아시아 10개국의 136개 은행을 대상으로 수익, 객관적인 지표, 주관적인 지표 등 3가지 기준에 의해 분석함.
- 아시아 지역의 중국 내륙, 홍콩, 타이완, 일본, 인도, 싱가포르,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10개국의 136개 은행들이 그 조사 대상임.
- △ 수익은 대출회수율을 △ 객관적인 지표로는 규모, 시장점유율, 대손충당금, 유동성, 자본충족률, 효율 및 지급준비율, 지점망 등을 △ 주관적인 지표로는 은행 임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사용했음.

표 1. 2009년 10대 아시아 은행의 경쟁력 순위

순위	은행명	국가	객관지표	수익지표	주관지표
1	홍콩상하이은행(HSBC)	홍콩	3	4	1
2	중국공상은행(中国工商银行)	중국	1	26	2
3	중국건설은행(中国建设银行)	중국	4	19	3
4	중국은행(中国银行)	중국	5	41	4
5	스탠더드 차타드(홍콩)渣打银行	홍콩	8	17	6
6	성전은행星展银行	싱가포르	6	75	7
7	항생은행恒生银行	홍콩	21	2	8
8	미쓰비시 은행(Mitsubishi UFJ Financial Group Inc.)	일본	2	123	11
9	교통은행(交通银行)	중국	19	20	5
10	초상은행(招商银行)	중국	13	7	9

자료: 『21世纪经济报道』(2010. 2. 22), 「2009亚洲银行竞争力排名研究报告(节选)」.

- 조사 결과 1위는 홍콩상하이은행(HSBC)이 차지했으며, 2~4위는 각각 공상은행(工商银行), 건설은행(建设银行), 중국은행(中国银行)이 차지하였음(표 1 참고).

- 아시아 10위 은행의 국가별 분포는 중국 5개, 홍콩 3개, 싱가포르 1개, 일본 1개임.
- 아시아 은행 50위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 내륙이 15개, 홍콩이 9개, 일본이 8개, 한국이 3개, 인도가 3개 등을 차지함(표 2 참고).
- 한국 은행들의 경우, 우리금융이 34위, 국민은행이 37위, 신한금융지주가 41위를 차지함(표 2 참고).

표 2. 50대 아시아 은행들의 국가별 분포

국가/지역	은행명	은행 수
중국 내륙	중국공상은행(2위), 중국건설은행(3위), 중국은행(4위), 교통은행(9위), 초상은행(9위), 중신은행(11위), 북경은행(13위), 홍업은행(15위), 중국광대은행(16위), 상해푸동발전은행(18위), 중국민생은행(19위), 중국농업은행(26위), 화하은행(31위), 선전발전은행(32위), 상해은행(35위)	15
홍콩	홍콩 HSBC(1위), 스탠다드 차타드(홍콩)(5위), 항셍은행(7위), 중국은행(홍콩)(12위), 동아은행(24위), 성전은행(星展銀行, 홍콩)(25위), 상해상업은행(27위), 영형은행(永亨銀行)(36위), 용릉은행(永隆銀行)(40위)	9
일본	Mitsubishi UFJ Financial Group Inc.(8위), Sumitomo Mitsui Banking Corporation(17위), Mizuho Financial Group(20위), Resona Holdings(21위), Sumitomo Trust & Banking Company Ltd.(30위), Bank Of Fukuoka(47위), Bank Of Yokohama(48위), The Chiba Bank(49위)	8
필리핀	Bank of Philippine Island(28위), Rizal Bank(45위), Equitable PCI Bank(46위), Metropolitan Bank(49위)	4
한국	우리금융회사(34위), 국민은행(37위), 신한금융지주(41위)	3
인도	State Bank of India(14위), ICICI Bank(43위), HDFC Bank(44위)	3
싱가포르	Development Bank of Singapore(6위), OCBC Bank(22위), United Overseas Bank(UOB)(33위)	3
태국	Bangkok Bank(29위), Kasikorn Bank(39위), United Overseas Bank(42위)	3
말레이시아	Malayan Banking Berhad(23위), Public Bank(40위)	2

자료: 『21세기经济报道』(2010. 2. 22), 「2009亚洲银行竞争力排名研究报告(节选)」.

- 136개 은행 중 중국 내륙의 16개 은행들의 경쟁력, 객관, 수익, 주관적인 순위는 [표 3]과 같음.

표 3. 중국 16개 은행들의 순위

은행명	경쟁력 순위	객관 순위	수익 순위	주관 순위
중국 공상은행(中国工商银行)	2	1	26	2
중국 건설은행(中国建设银行)	3	4	19	3
중국은행(中国银行)	4	5	41	4
교통은행(交通银行)	9	19	20	5
초상은행(招商银行)	9	13	7	9
중신은행(中信银行)	11	11	44	13
북경은행(北京银行)	13	22	32	18
흥업은행(兴业银行)	15	38	11	14
중국광대은행(中国光大银行)	16	76	1	21
상해포동발전은행(上海浦东发展银行)	18	65	9	10
중국민생은행(中国民生银行)	19	53	22	12
중국농업은행(中国农业银行)	26	9	133	15
화시에은행(华夏银行)	31	79	55	22
심천발전은행(深圳发展银行)	32	96	43	20
상해은행(上海银行)	35	78	21	29
광둥발전은행(广东发展银行)	52	87	30	57

자료: 『21세기经济报道』(2010. 2. 22), 『2009亚洲银行竞争力排名研究报告(节选)』.

나. 금융위기 이후 중국 은행들의 특징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09년은 세계 경제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부의 정책과 역할, 영향, 새로운 발전방향 등이 은행들의 경쟁력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
- 2009년 2분기와 3분기에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각각 7.9%, 8.9%였음. 특히 3분기에는 투자, 소비, 출구전략이 GDP에 미친 영향은 각각 94.8%, 51.9%, -46.7%이며, 경제성장률에 각각 7.3%, 4%, -3.6%씩 기여했음.
- 부동산, 자동차의 수요증가를 보면 중국경제가 회복국면에 진입했다고 판단되나, 아직 GDP의 1/3을 차지하는 수출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음.
- 중국 은행의 신용대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9년 상반기 신규대출총액이 이미 1조 위안을 넘어가면서 2008년의 2배 이상을 기록함.
- 2009년 신규대출총액은 10조 위안으로 최근 10년간 평균의 5배에 이름. 이는 △ 중국 은행 실적 하락을 염려한 정부의 정책 완화로 인한 결과이며 △ 2003년부터 시작된 은행의 개혁 성과로 해석되기도 함.

- 2008년 말 전체 은행의 예금 대비 대출 비율은 61%로 중국은행관리감독위원회가 정한 75%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음. 2010년에는 67%로 예상되며, 만약 2011년에 저축이 15% 증가하고 대출이 8조 위안 증가하면 대출 비율은 73%로 상승될 것으로 예상됨.
- 2009년 대출 증가의 세 가지 원인으로, △ 경기부양을 위한 4조 위안 투자 △ 부동산 대출 증가 △ 어음 대출의 급속한 증가를 들 수 있음.
- 중국은 다른 국가와는 달리 경제위기를 벗어나는 과정에서 주로 은행 대출로 4조 위안의 자금을 해결하였기 때문에, 대출 증가속도가 빠르고 이로 인한 불량 대출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됨.
- 특히 지방정부들이 부족한 재정을 은행 대출을 통해서 충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대출리스크는 매우 높은 상황임.
- 은행의 지방정부 대출은 매우 많고, 액수가 크며, 현금 흐름이 전혀 없는 특징을 가짐.
- 지방정부는 △ 기초인프라 투자로 인한 장기에 걸친 투자이며 △ 경제 및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로 이어져 있다고 주장함.
- 어음 대출, 부동산 대출에 대한 리스크도 주목해야 함. 어음 대출은 2010년 1분기 1조 4,800억 위안으로 신규 대출의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동산 대출 규모도 상당함.

다. 은행 개혁의 필요성은 여전

- 중국 은행들은 최근 몇 년간 빠른 속도로 발전해 왔으며, 특히 소매금융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으며, 은행 개혁은 계속 진행 중임.
-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리스크가 매우 크고, 아직까지 리스크 보상체계를 확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소기업 대출의 전문화가 필요함.
- 은행이 중소기업 대출 시 직면하는 문제점은 높은 교역원가와 정보의 비대칭성임.
- 중소기업은 기본적으로 외부충격에 약한 구조이며, 내부경쟁·수출입·원자재가격에 매우 민감함.
- 대기업의 자금 공급 루트는 매우 다양하나 중소기업은 단순하기 때문에, 중국 은행은 중소기업 대출을 전문화하고 높은 교역원가를 낮추며,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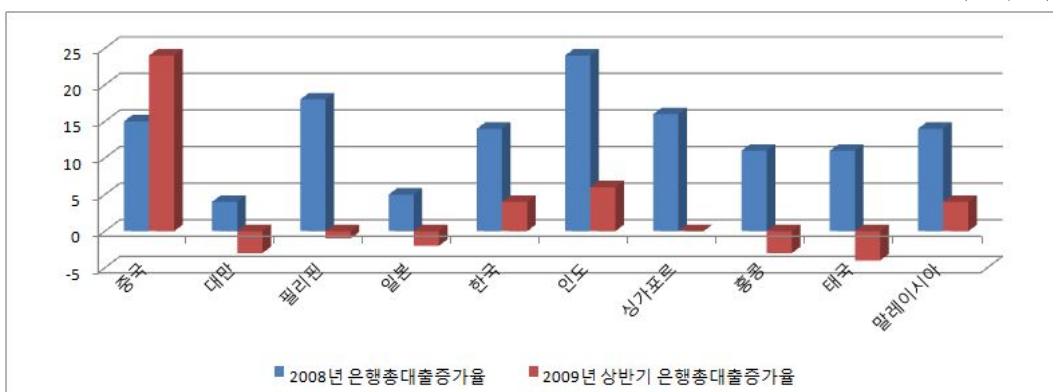
- 농촌금융은 미래의 블루오션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대부분 정부의 보조금으로 손실을 충당하고 있는 실정임.
- 중국 은행들의 기업금융서비스는 매우 동일하기 때문에 서비스 다양화가 필요함.
 - 중앙은행은 첫째, 대출전환, 둘째, 표준화실시, 셋째는 자산증권화를 추진하고 있음.
 - 미국의 금융위기가 증권화를 낳발한 결과이지만, 자산증권화는 리스크를 분리하고 자산 유동성을 조절하며 고정수익을 산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임.
 - 새로운 자산관리 방법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혁신이 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중국 은행들이 기업의 자산관리 방법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
- 금융위기의 불확실성, 실물경제의 회복시기, 경제 활성화 정책의 시기, 인플레이션 등 중국 은행이 직면한 외부요소들은 아직도 많음.

라. 중국 은행들과 다른 아시아 은행과의 비교

- 2009년 상반기 동안 아시아에서 중국, 싱가포르, 한국, 대만, 말레이시아만이 양(+)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했고, 이 중에서 중국 은행들만이 2008년 대비 총자산이 20% 증가했음.
- 2009년 상반기 중국 은행들의 대출 규모는 24% 증가하였으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년 대비 증가함(그림1 참고).

그림 1. 아시아 은행들의 대출 총액 증가율

(단위: %)



자료: 『21세기经济报道』(2010. 2. 22), 『2009亚洲银行竞争力排名研究报告(节选)』.

1) 대손충당금 비율

■ 대손충당금 비율은 은행 경영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중국 은행들의 대손충당금 비율은 150%를 넘어서고 있으며 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은행들의 경우 100%정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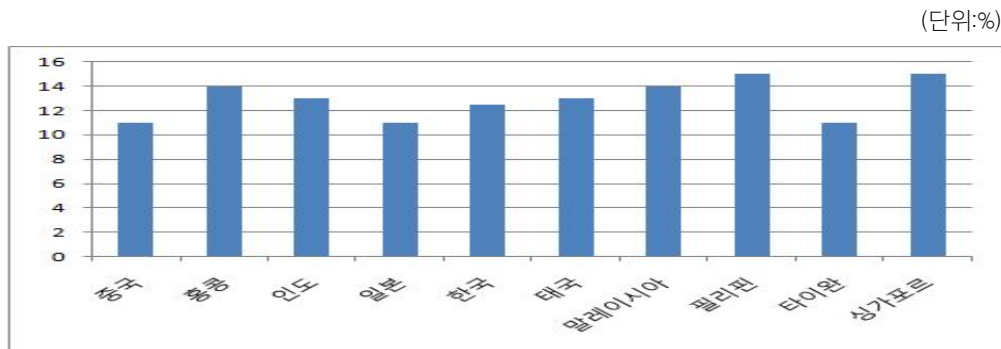
- 일본, 인도의 대손충당금 비율은 50% 정도로 낮음.

2) 자기자본비율(BIS)

■ 싱가포르, 홍콩,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의 은행 자기자본비율은 비교적 높은 편으로 평균 13%를 상회하고 있으며, 한국, 태국은 중간수준이며 중국, 일본, 대만 등은 비교적 낮은 8%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아시아 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은 대체로 건전한 편임. 중국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2008년보다 하락했는데, 대출의 안정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기자본비율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그림 2. 2008년 중국 및 아시아 각국 은행의 평균 자기자본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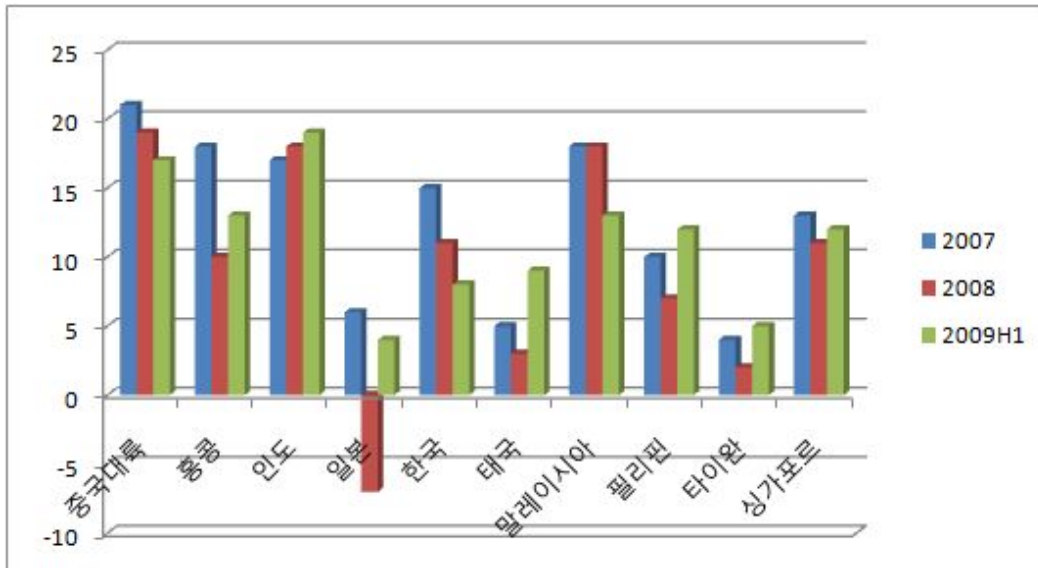


자료: 『21세기经济报道』(2010. 2. 22), 「2009亚洲银行竞争力排名研究报告(节选)」.

3) 평균 순자산 수익률(ROAE)

■ 인도 은행만이 평균 순자산 수익률이 금융 위기 속에서도 소폭으로 증가했고, 중국 은행의 평균 순자산 수익률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높은 편이나 하락하는 추세임.

그림 3. 아시아 은행들의 평균순자산수익률(ROAE)



자료: 『21세기경제报道』(2010. 2. 22), 『2009亚洲银行竞争力排名研究报告(节选)』.

마. 중국 은행들에 대한 전망

- 설문조사 결과 많은 전문가들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한 중소기업 대출수요증가 때문에 앞으로 대출증가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함.
- 중국경제에 대한 낙관론으로 인해 중국 은행의 미래도 밝음.
- 중국은 2009년 11월에 50년 이상의 장기국채 발행을 준비하면서 상업은행과 보험회사들이 주 고객이 될 것이라고 밝힘.
- 이번 ‘아시아 은행들의 빠른 발전 속도 예측’ 설문조사에서 절대 다수가 중국 은행을 선택하였지만, 중국 은행들은 정부의 거시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잠재적인 리스크가 크다고 지적함.

2. 중국 보험 산업의 경쟁력 조사

가. 아시아 보험시장 개괄

- 21세기경제报道(21세기经济报道)는 21세기연구원 금융연구중심,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과

함께 아시아 보험시장의 경쟁력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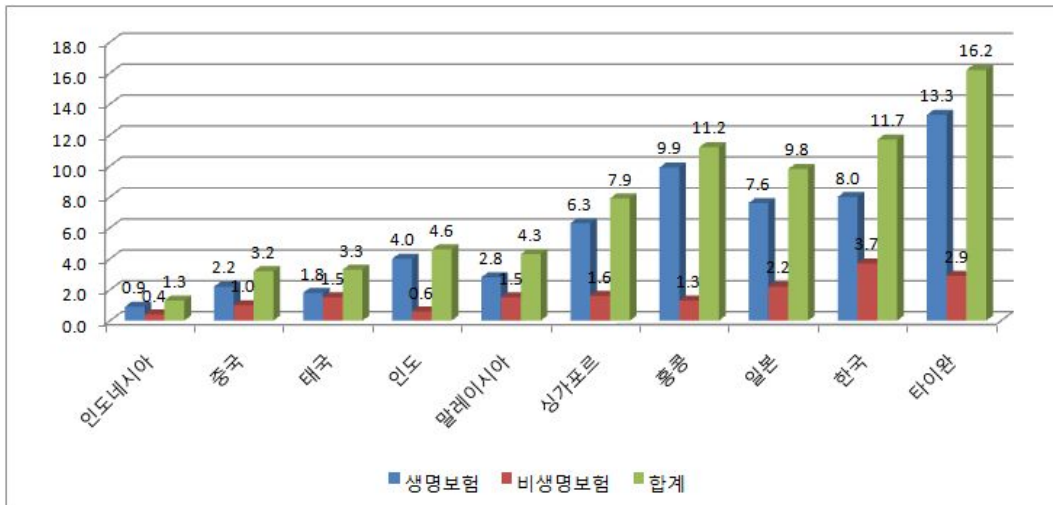
- 2008년 세계 보험시장이 마이너스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보험시장은 2007년의 -2.7%에서 8.2%로 성장했고, 중국 시장은 39%의 성장을 보임.
- 2008년 세계 보험시장은 금융위기 여파로 인해 비생명보험 자본이익이 30~40% 감소했고, 생명보험업의 자본이익률은 15~20% 감소했음.
- Swiss Re-Insurance Company 연구에 의하면, 2008년 전 세계 보험시장(생명보험+비생명보험) 규모는 4조 2,700억 달러이며, 유럽, 북미, 아시아 시장이 각각 41%, 32%, 22%를 차지하고 있음.
- 아시아 시장의 보험이익을 기준으로 보면, 2008년 기준으로 일본, 중국, 한국이 53%, 16%, 11%를 각각 점유하고 있음.
- 처음으로 중국이 한국을 제치고 2위를 차지했으며(2007년에는 일본, 한국, 중국이 각각 51%, 14%, 11%를 차지), 그 원인으로는 중국 시장의 급성장과 위안화 강세를 꼽을 수 있음.
- 세계 보험시장 중 생명보험과 비생명보험의 비율은 각각 58.3%(2조 4,900억 달러), 41.7%(1조 7,790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으나, 아시아 시장의 보험구성비는 생명보험이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이는 일본 시장의 영향 때문으로, 일본이 아시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인데 일본 시장의 경우 생명보험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아시아 국가들의 보험 침투도

- 보험 침투도(insurance penetration)는 GDP에서 보험 시장 규모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데, 아시아 시장의 평균 보험 침투도는 6%로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가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 대만, 한국, 홍콩, 싱가포르가 각각 16.2%, 11.8%, 11.2%, 7.8%를 나타냈고, 가장 큰 일본시장은 9.8%를 나타냄. 인구가 많은 중국과 인도는 각각 3.3%, 4.6%를 나타냄.

그림 4. 아시아 국가들의 보험 침투도

(단위:%)



자료: 『21세기经济报道』(2010. 2. 22), 「2009亚洲保险公司竞争力排名研究报告(节选)」.

나. 중국의 보험시장

- 중국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CIRC)라는 독립된 금융감독기관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국가에 비해서 금융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지만 일부 손실은 발생함.

- 예를 들면, 중국 제2의 보험회사인 중국평안보험공사의 경우 2008년 말 Fortis에 투자한 손실이 157억 위안(23억 달러)에 달하고, AIG는 중국인민재산보험공사의 약 9.9%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시장에 미칠 악영향을 걱정하고 있음.
- 자산가격변화와 보험 취소율 증가가 유동자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CIRC는 보험공사의 유동성 통제를 강화하기 시작함.
- 국제회계표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IFRS)을 제정함. 아시아 국가들 중 현재 홍콩만이 국제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미 2006년에 제정된 중국회계기준의 많은 부분이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제정되었음.

- 중국 보험시장은 1990년대 초반부터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1995년에 실시된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中华人民共和国保险法)」에 의해서 중국 보험 산업은 빠른 발전을 하기 시작함.

- 1979년 중국 보험비 규모는 4억 6,000위안 이었으나, 2008년 9,784억 위안으로 개혁·개방 초기보다 2,127배나 증가함.

- 양적으로 보험회사의 수가 1980년의 1개에서 2008년의 112개로 증가하였고, 질적으로도 보험회사의 자본 총액은 5,000만 위안에서 2,000억 위안으로 확대됨(4,000배 증가).
- 보험 총자본과 총자산의 증가는 보험 산업의 상환능력을 보장하여 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 보험의 총체적인 발전은 안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1980년 중국 보험시장의 보험 침투도는 0.1%였으나, 2008년에는 3.26%로 33배 증가함.
- 2008년 중국 자본시장은 금융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아, 2007년 12.17%의 투자수익률이 2008년 1.91%로 급격하게 하락함. 최근 중국 주식시장이 회복되어 2009년 상반기의 투자회수율이 3.44%로 회복했으나 안심할 단계는 아님.

다. 아시아 보험회사의 경쟁력 조사

- 이번 경쟁력 조사는 아시아 10개국의 515개 보험사를 대상으로 회사의 재무 분석과 임원진의 설문조사 분석을 병행하였음.
- 중국, 홍콩, 인도, 일본, 한국, 타이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 10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했고, 233개 생명보험회사와 334개 비생명보험회사를 합쳐 총 515개 보험회사들을 분석했음.
- 재무 분석은 시장규모, 자본능력, 상환준비금 총족률, 이익률, 유동성 및 안전성 등 6개 기준에 의하여 순위를 정함.
- A. M. Best, Weiss, Fitch등 3개 평가모형을 참고하여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분석했음.
- 1) 2009년 생명보험회사 순위 및 분석
- 10대 아시아 생명보험회사는 중국, 한국 회사들이 각각 5개, 3개이며, 인도, 타이완 회사들이 각각 1개임(일본과 말레이시아 제외).

표 4. 2009년 생명보험회사 순위 및 분석

순위	보험회사명	국가
1	중국인수보험유한공사(中国人寿保险股份有限公司)	중국
2	중국평안보험유한공사(中国平安人寿保险股份有限公司)	중국
3	삼성생명보험(Samsung Life Insurance Co., Ltd)	한국
4	중국태평양 인수보험주식회사(中国太平洋人寿保险股份有限公司)	중국
5	인도인수보험공사(Life Insurance Corporation of India)	인도
6	타이강인수보험공사(泰康人寿保险股份有限公司)	중국
7	궈타이인수보험 유한공사(国泰人寿保险股份有限公司)	타이완
8	한국교보생명(Kyobo Life Insurance Co., Ltd)	한국
9	태평인수보험공사(太平人寿保险股份有限公司)	중국
10	대한생명보험(Korea Life Insurance Co., Ltd)	한국

자료: 『21세기经济报道』, (2010. 2. 22), 「2009亚洲保险公司竞争力排名研究报告(节选)」.

2) 2009년 비생명보험회사 순위 및 분석

- 10대 비생명보험회사의 국가별 분포는 중국회사 4개, 한국회사 2개, 인도, 타이완, 싱가포르, 태국 회사가 각각 1개씩임.

표 5. 2009년 비생명보험회사 순위 및 분석

순위	보험회사명	국가
1	중국인민재산보험주식회사(中国人民财产保险股份有限公司)	중국
2	삼성화재해상보험회사(Samsung Fire & Marine Insurance Co., Ltd)	한국
3	중국 태평양재산보험유한공사(中国太平洋财产保险有限公司)	중국
4	중국 평안재산보험유한공사(中国平安财产保险股份有限公司)	중국
5	신인도보험유한공사(New India Assurance Co., Ltd)	인도
6	화타이 재산보험유한공사(华泰财产保险股份有限公司)	중국
7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Seoul Guarantee Insurance Company)	한국
8	부방 보험회사(富邦保险公司)	타이완
9	사이러스 국제보험회사(Sirus International Insurance Corp., Ltd)	싱가포르
10	뉴햄프셔 보험회사(New Hampshire Insurance Company)	태국

자료: 『21세기经济报道』, (2010. 2. 22), 「2009亚洲保险公司竞争力排名研究报告(节选)」.

3) 중국의 생명보험회사의 순위에 대한 종합적 분석

- 25대 중국 생명보험회사 중 3위권 기업인 중국생명보험회사, 중국평안생명보험회사, 중국태평양생명보험회사는 중국에서 랭킹 3위안에 포함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150대 보험기업 중 10대 기업에 포함됨.

표 6. 중국 생명보험회사의 순위

순위	보험회사명
1	China Life Insurance Co., Ltd (中国人寿保险股份有限公司)
2	Ping An Life Insurance Co., Ltd (平安人寿保险股份有限公司)
3	China Pacific Life Insurance Co., Ltd (太平洋人寿保险股份有限公司)
4	TaiKang Life Insurance Co., Ltd (泰康人寿保险股份有限公司)
5	Taiping Life Insurance Co., Ltd (太平人寿保险股份有限公司)
6	Manulife-Sinochem Insurance Co., Ltd (中宏人寿保险股份有限公司)
7	American International Insurance Co., Ltd (美国友邦保险有限公司)
8	Minsheng Life Insurance Co., Ltd (民生人寿保险股份有限公司)
9	CITIC-Prudential Life Insurance Co., Ltd (信诚人寿保险股份有限公司)
10	Sino Life Insurance Co., Ltd (生命人寿保险股份有限公司)

자료: 『21세기경제报道』, (2010. 2. 22), 『2009亚洲保险公司竞争力排名研究报告(节选)』.

4) 중국의 비생명보험회사의 순위에 대한 종합적 분석

■ 5대 중국기업과 5대 외자기업을 비교했을 때에 판매와 투자 면에서 상이한 양상을 보임.

- 중국의 3대 손해보험회사인 중국인민재산보험, 중국태평양재산보험, 중국평안재산보험이 이익과 자산 면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음.
- 자기자본비율을 살펴보면, 중국 국내기업의 순위는 낮았고 외자기업은 비교적 높았음. 태평양재산보험만 예외로 2위를 차지했고, 중국인민재산보험과 중국평안재산보험은 각각 17위와 10위를 차지함.
- 배상준비금과 유동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리스크 관리를 더욱 중시하는 외자기업들이 중국기업들보다 높은 순위를 차지함.
- 한국의 삼성화재해상보험이 중국 내에서 5위를 차지함.

표 7. 중국 비생명보험회사 순위

순위	보험 회사명
1	PICC Property and Casualty Co., Ltd.(中国人民财产保险股份有限公司)
2	China Pacific Property Insurance Co., LTd.(中国太平洋财产保险股份有限公司)
3	Ping An Property & Casualty Insurance Company of China Ltd. (中国平安财产保险股份有限公司)
4	Huatai Insurance Company of China Ltd.(华泰财产保险股份有限公司)
5	Samsung Fire & MArine Insurance (China) Co., Ltd.(三星火灾海上保险有限公司)

표 7. 계속

순위	보험 회사명
6	Muisui Sumitomo Insurance(China) Co., Ltd.(三井住友海上火灾保险有限公司)
7	Tokio Marine & Nichido Fire Insurance(China) Co., Ltd.(东京海上日动火灾保险公司)
8	Chartis Insurance Company China Ltd.(美亚财产保险股份有限公司)
9	Alltrust Property Insurance Co., Ltd.(永成财产保险股份有限公司)
10	Winterthur Insurance(Shanghai branch) (丰台保险有限公司 上海分公司)

자료: 『21세기经济报道』(2010. 2. 22), 「2009亚洲保险公司竞争力排名研究报告(节选)」.

라. 시사점

- 아시아에서 경쟁력 순위에 따른 50대 생명보험 회사 중 7개가 중국 기업이며 50대 비 생명보험회사 중 4개가 중국의 손해보험회사였음.
- 아시아 100대 보험 회사 중 중국의 생명보험회사가 25개, 비생명 보험회사가 20개가 포함됨.
- 중국의 생명 및 비생명 보험회사들이 아시아 25대 기업 중 국가별 랭킹에서 2위를 차지하였으나 자본 능력, 안정성, 유동성, 배상준비금 충족비율 및 수익성 등에서는 제고되어야 함.
- 중국보험회사는 앞으로 △ 기업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강화시켜야 하며, △ 낮은 배상준비금 비율을 높여야 하며, △ 비효율적인 고비용 구조를 효율적으로 전환해야 함.

■ 참고자료 ■

『21세기经济报道』, 2010. 2. 22, 「2009亚洲银行竞争力排名研究报告(节选)」.

『21세기经济报道』, 2010. 2. 22, 「2009亚洲保险公司竞争力排名研究报告(节选)」.

자료 정리: 칭화대학교 경제관리학원 박사과정 문익준(pukkajoon@gmail.com)